

불교의 추천·초도 의례*

이 성 운**

문 기 조(문현)***

「차 례」

- | | |
|-----------------------|--------------------|
| I. 서언 | IV. 한국불교의 追薦 超度 儀禮 |
| II. 追薦과 超度の 本質的 意味 | V. 결어 |
| III. 敎義와 儀禮의 不離性과 딜레마 | |

<국문요약>

죽음 이후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육도에 생사윤회를 계속한다는 사상을 수용한 불교에는 망자를 위한 다양한 의례가 발달하였다. 이 글은 그 사후의 망자를

* 이 논문은 2022.7.3. 제7차 반야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하였다.

** 주저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사단법인 세계불학원 연구원.

위한 한국불교의 의례인 천도재와 그 이전의 의례인 추천(追薦)과 초도(超度)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천도재가 교학에 부합하는지를 살폈다. 추천은 칠칠재 등 특정 재회(齋會) 때 재공(齋供)을 올리고, 초도는 승니(僧尼)를 초청해 송경(誦經)하고 예참(禮懺)하는 것이 중심이다. 한국불교의 의례는 교의(教義)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의례 실행 목적의 측면에서 그렇다. 또 혼령에 대한 개념과 혼령의 거처, 중음(中陰)의 기간 등에 대한 인식은 교리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며, 의례 실행과 수용의 측면에서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널리 행해지는 의례로는 추천에 적합한 영반(靈飯)과 초도에 어울리는 시식(施食)이 있는데, 이 두 의례는 천도재로 승화되어, 자신을 위해 업장 닦고 공덕을 짓는 의례로, 한국불교의 주요한 신행(신앙·수행) 의례로 정착되었다.

주제어: 불교의례, 생사윤회, 추천, 초도, 영반, 관음시식, 천도재

I. 緒言

인도에서 출현한 불교의 인식들은 인도라는 그 지역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쉽게 ‘제법개공(諸法皆空)’이라는 술어로 정리하듯이, 우리들의 시야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려오는 것 등 감각기관들로 인식되는 것들은 다 환상(幻相, māy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불교 또한 일체는 인연 화합하여 임시로 존재하는 가유(假有)라고 인식하고 그 본질을 깨쳐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도 일정 기간 존재한 다음 이 세상에서의 명

이 다하면 다음 세상으로 떠나간다. 그렇게 윤회하는 세계를 후대에 육도윤회로 정형화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불교 고유의 인식이나 사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불교는 죽음 이후 중유가 남아 전생의 업력에 따라 다음의 몸을 받는 생사윤회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상에 따라 의례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또 그 윤회의 주체에 대해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나 불교는 이에 대해 “무아윤회(無我輪廻)”로 대응한다. 이 사실은 『잡아함경』의 “생이 다해서 사라지면 업(業)과 과보(果報)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 이것이 음이 멸하는 것이다”¹⁾라는 말에서 확인된다. 불교의 윤회는 업(業)을 원동력으로 하여 순환하는데 이는 업보에 따라 육도(六道)에 윤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육도는 높은 곳으로부터 천(天)·인간(人間)·아수라(阿修羅)·축생(畜生)·아귀(餓鬼)·지옥(地獄)의 세계이다. 이와 같은 세계는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일체 업에 의해 태어남이 결정된다고 믿는다.²⁾

육도에 윤회한다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불교도들은, 이것을 실체적으로 믿거나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교의 설명과 불교도의 이해 또는 인식에서 불교의 생사관은 정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여 불교의례는 이해되고 해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 경론에서 생사에 대해 대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태어남(生)이란 무엇인가. 중생들이 이런저런 중생(衆生)의 부류에서의

1) 『雜阿含經』(T.2, 92c), “生已盡滅, 有業報而無作者, 此陰滅已.”

2) 이연경(2021), 18-19.

태어남, 출생, 입태(入胎), 나타남(abhinibbatti, 변화해서 태어나는 존재(化生)³⁾로 顯現하는 것, 다섯무더기들[五蘊: 色受想行識]의 생겨남, 감각기관들[六入: 眼耳鼻舌身意]의 발생이 있다.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⁴⁾

죽음[死]이란 무엇인가. 중생들이 이런 저런 중생(衆生)의 부류에서의 죽음, 죽는 것, 파괴, 소멸, 사망, 사(死), 목숨이 다함, 다섯 가지 무더기[五蘊]의 파괴, 신체를 버림, 생명기원(命根)의 끊어짐이 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⁵⁾

생명은 체열과 의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 보존시키는 힘이라는 의미로 명근(命根, jīvata-indriya)이라고 하며, 명근이 끊어지면 체열과 의식의 움직임이 없어지는데 이를 죽음이라고 하고 있다.⁶⁾ 불교는 인간의 근원적 고통인 생로병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붓다의 출가와 그 수행이 그렇고, 후대 불교의 수행자들도 예외라고 할 수 없다.⁷⁾

한국의 불교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나옹 혜근(1320-1376)은 죽음에 이른 것은 “조그마한 묵은 빛으로 고요히 몸을 바꾸게 되었다”⁸⁾고 하며, “여러 불자들이 육도를 윤회하게 된 것은 과거로부터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에 어울려 여러 세계에 잘못 들었기”⁹⁾ 때문이라고 갈

3) 여섯 가지 존재의 세계(六道: 지옥, 아귀, 축생, 이수라, 인간, 천인)에서 태생(胎生)과 난생(卵生)으로 태어나는 인간과 동물의 세계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화생(化生)이다.

4) 『잡아함경』(T.2, 85b11-13). ; 『緣起經』(T.2, 47b24-26).

5) 『잡아함경』(T.2, 85b16-18).

6)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2011), 173-174.

7) 이성운(2016b), 338.

8) 『懶翁和尚語錄』(1994), 718상.

9) 『懶翁和尚語錄』(1994), 718중.

파한다. 또 그것은 깨달음을 등진 무명과 빛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⁰⁾ 같은 시대 임제종의 법맥을 이은 백운 경한(1289-1375)은 “육십년 세월 한 바탕 꿈, 행장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혼령은 어느 곳으로 갔느냐고 되묻고”¹¹⁾ 있다.

대체로 죽음을 맞이하여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는 무명을 깨닫기를 바라며 사후에 극락세계 구품 연화대로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 선사로서 정토사상을 수용한 나옹의 영가 법어들은¹²⁾ 후대 한국불교 임종의식의 전범다비문으로 확립되는 데 기여한다.¹³⁾ 생사불이라는 본질론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끝에 극락왕생사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불교는 본질론적 불교 생사관을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에는 깨달음을 이루었던 그렇지 않던 죽은 혼령이 육도의 윤회를 끊고 왕생극락하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 의례가 활용되고 있다.

불교의 의례는 다양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의례의 의미(意味)를 중심으로 분류하거나 의례 설행(設行)의 빈도 등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⁴⁾ 그것들은 선정형과 기도형의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구조적인 면에서 자행 의례와 타행 의례로 나누기도 하며, 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⁵⁾ 결국 불교의 다양한 의례는 결국 크게 보면 수행의례와 교화의례, 또 통과의례와 일상의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글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말에서 사용하는 추천(追薦)과 초

10) ‘자식은 빗쟁이’라는 俚言도 이 같은 사상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11) 『白雲和尚語錄』(1994), 655하.

12) 金曉吞(민족사), 162-173.

13) 이성운(2016b), 352.

14) 이성운(2012), 17-24.

15) 박세민(1993), 23-29.

도(超度)에 대해 그 의미를 먼저 밝혀 보고, 이어 의례의 의미와 교의와의 불리성을 논의해 보며, 그것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追薦과 超度の 본질적 의미

논제를 ‘추천·초도(追薦超度)’ 의례라고 하였다. 한국불교에 너무나 익숙하게 소통되는 천도재(薦度齋)라고 하면 독자들의 고민거리가 없을 텐데, 논자가 굳이 ‘추천·초도’ 의례라고 한 까닭을 먼저 해명해야 독자들의 동의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천도(薦度)’라는 명칭이 현대에 이르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천도에 대해 ‘지옥 등에 빠진 존재를 건져내어 극락에 왕생하게 하는’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천도재를 매년 계속 되풀이할 때의 의미로 적절한가 하는 의문(疑問)이 현재의 설명만으로는 잘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천과 초도는 무엇인가. 추천(追薦)은 초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은 망자의 칠칠재와 백일재·소상재·대상재의 의례 행위에 추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추천은 한국불교에서 추후(追後)에 천신(薦新: 새 곡식 등을 골라 제사상에 올리는 것) 하여 좋은 곳에 가게 하는(薦度) 제사의 의미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추천의 천(薦)에 대해 지옥에 빠진 존재를 구발(救拔)하는 의미나, 명복을 비는 의미로 설명하고는 있다. 경전에는 보이지 않고, 논서에만 나

타나고 있다. 비교적 이른 표기로는 당 법장(643-712)의 『화엄유심법계기(華嚴遊心法界記)』,¹⁶⁾ 종밀(780-841)의 『불설우란분경소(佛說盂蘭盆經疏)』, 송 종효(1151-1214)의 『낙방문류(樂邦文類)』, 왕일휴(王日休, 1105-1173)의 『용서증광정토문(龍舒增廣淨土文)』 등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 먼저 당의 종밀이 행한 추천(追薦)의 용례를 보자.

비록 효를 생각해서 실천하였으나 신도(神道, 조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현의 가르침을 뒤져 삼가 追薦하는 방법을 구하다가 이 방법을 얻게 되었다. 실로 이 방법은 오묘한 행이었다. 매년 스님들의 자자일(百種)에 삼보에 사사(衣服·飲食·臥具·醫藥, 혹은 衣服·飲食·湯藥·房舍 等)공양을 하는 것이었다. 종밀은 이 방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조상숭배라는 효행을 실천하였다.¹⁷⁾

추천하는 방법은 자자일(自恣日), 곧 안거가 끝나는 백종(百種)에 삼보에 사사 공양하는 것이다. 구제해야 하는 구발(救拔)의 당사자에게 제사와 같은 시식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왕일휴의 『용서증광정토문』 「보권수지7」에는 정토의 업을 닦는 선연으로써 죄악을 소멸하여 풀 수 있다고 하며 복과 수명을 늘리고 왕생을 장엄하는 공덕이 가하다고 하면서 망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⁸⁾ 또 소동파의 “화아미타불상계”에는 망모의 비녀 등 유물로 장인에게 아미타불상을 조성하게 하여

16) 「華嚴遊心法界記序」(T.45, 642b), “子便爲渠追薦且懲後者” 물론 이곳에 언급되고 있는 추천은 1728년에 일본에서 작성한 것이라 7세기 법장의 추천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17) 宗密 述, 『佛說盂蘭盆經疏』(T.39, 505a).

18) 王日休 撰, 『龍舒增廣淨土文』(T.47, 261a).

추천 명복을 빌고¹⁹⁾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추천은 망자의 명복을 비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방법은 삼보에 네 가지를 공양하거나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염불하여 정토왕생의 업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조선실록』에는 칠칠재나 기신(忌辰) 등을 맞아 망자의 명복을 위해 추천(追薦)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인다.²⁰⁾ 그런데 이때의 추천은 현재와 같은 망자를 위한 시식 의례가 아니라 재승(齋僧, 飯僧)이 중심이다.

전조에서 현 조정까지 국왕의 기신(忌辰, 기일)에 추천하는데, 기일에 반승(飯僧)을 합니다. 이것들을 다 금지하고 혁파하고 그런 다음 탄일제도 아울러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²¹⁾

탄신(일)이나 기신(일)에 반승을 하는 것이 추천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실록』에 산재한 추천 관련 기사에 의하면, 추천의 불사는 반승을 비롯하여 불사를 짓고 경전을 금으로 사경하고 책자를 조성하는 등을 하여 망자의 명복을 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실록』에 빈번히 등장하는 추천(追薦)은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연이 있는 이들이 행하는 선업 공양으로, 일종의 선조제(先祖祭)라고 할 수 있다. 이 추천을 중국불교 선종이나 일본불교에서는 추선공양(追善供養)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교와 불교의 선조제가 다른 점은 이

19) 東坡居士軼, 「畫阿彌陀佛像偈(并序)」, 『樂邦文類』(T.47, 215b).

20) 『조선실록』에는 45회의 “追薦”이 검색되지만 국행 불교의례의 의미는 39회이고 나머지는 추후에 추천한다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21) 『태종실록』 1권, 태종 1(1401)년 5월 10일 무술 2번째기사.

즈음에서 드러난다. 유교의 선조제가 추효(追孝)라면 불교의 선조제는 추천(追薦, 追福)을 위한 행사라는 것이다.²²⁾

추천을 위해 민승을 하는 것을 ‘추천재(追薦齋)’라고 하고, 추천의 불사를 한 다음 망자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추천제(追薦祭)라고 할 수 있다. 추천 불사 이후에 재승(齋僧)을 행하는 형식이 합해진 의례가 바로 영산재, 수록재, 예수재, 각배재, 상주권공재, 칠칠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작법과 재승이 결합한 영산재처럼 각 법회 이후 재승을 행하면 수록재 등으로 치정되었다. 이 의례들은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축소되어 현대에는 삼보통칭의 공불재승(供佛齋僧) 형식이 일반화되었으나 별도로 행하는 재승 의례는 보이지 않는다.

추천의 ‘천(薦)’은 천신제처럼 신곡(新穀)을 골라 조상신의 제단에 올린다는 의미이자, 인재를 천거해서 올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찍부터 재승의 재회가 시아귀회(施餓鬼食)로 변천되었다. 최초의 수록법회 또한 무차대회(無遮大會)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핵심 의식은 시승식(施僧食)이고 재회와 관련된 기록도 비교적 많다.²³⁾ 하지만 위에서 살폈듯이 조선 초기에 이르면 탄신이나 기신의 재회가 점차 사라지고 망자를 위한 추천의 불사들은 점차 줄어들고 시아귀회의 의미로 제사가 재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망재주로 先祖의 추천을 위한 불사를 ‘천도(薦度)’라고 표현한 예가²⁴⁾ 없는 것은 아니나, 추천 의례를 ‘천도’ 혹은 ‘천도재’라는 어휘로 한국불교에 일반화된 것은 1970

22) 미치하타 료오슈우 저, 최채경 옮김(1991), 203.

23) 侯冲, 郭磊 譯(2016), 50.

24)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1484)년 3월 13일 庚子 1번째기사, “其修善於身 施及民物者 可謂至矣 不必寫經薦度 然後生樂地 受善果也.”

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²⁵⁾

추천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초도(超度)에 대해 그 의미와 의례의 특징을 살펴보자. 국내 문헌에 초도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 뛰어오르는 것의 ‘승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한국불교에서 초도라는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은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초도는 ‘초월도과(超越度過)’의 약어로 생사를 초월하여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사전적 정의 또한 불교나 도교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데, 망령을 구제하여 건너게 하여 고통과 어려운 세계를 벗어나게 하고자 승니(僧尼)나 도사(道士)를 청하여 망자를 위해 경전을 염송하고 예배하고 참회하는 의례가 초도라고²⁶⁾ 하고 있다. 초도 또한 추천처럼 망자를 위해 경전을 염송하고 예배하여 공덕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천과 초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의례 실행 목적에서 보면 차이가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의미나, 실제 모습 등을 참고로 해서 그 차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초도는 망자가 고통과 액난을 벗어나도록 구제하여 제도하는 의례로서 승니(비구·비구니)를 초청하여 경전을 염송하고 예참(禮懺)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추천은 일반적으로 서거 후 칠일에서 49일까지, 백일, 연기(年忌: 매일 기일) 등의 법회에서 망자의 고통을 소멸하며 명복을 빌기 위해 각종 선업을 닦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선업에는 불상이나 당사를 건립하거나 법시(法

25) 전통의문들의 명칭은 제반문, 작법절차, 요집, 범음집 등으로 명칭되었고, 전통 의례 절차를 무오년 불모산인 김달환이 필사한 책에 “薦度集”이라는 표지명을 볼 수 있고, 전통 의례 절차에 “천도의(薦度儀)”라는 명칭이 붙은 책자로는 월운(1980·1986)이 편한 『삼화행도집』(보련각) 정도에 불과하다.

26) 『佛光事典』 [超度], “佛敎·道敎中, 爲救度亡靈, 使其超脫苦難, 請僧尼·道士爲亡者誦經拜懺, 謂之超度.”

施)와 재물을 베풀어 주며, 송경·지주(持呪)·공재(供齋)하는 등의 각종 작법이 있다.

〈표 1〉 초도와 추천의 차이점

區分	超度	追薦
목적	救度亡靈, 使其超脫苦難	爲消除亡者之苦, 祈求冥福
시기	死亡後	망자가 중유에 있는 칠칠제 소·대상재까지
방법	僧尼를 청해 誦經하고 禮懺	불상·당탑 조립, 송경 지주, 供齋 등 각종 작법사
진행	승니	친족이 아사리에게 추천 불새수륙재 등을 청해 이뤄짐

두 의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행해진 상황 등을 보면 추천은 한국불교에서 칠칠제·백일제·소상재(小祥齋)·대상재와 기신에 주로 행해졌고, 송경이나 지주(持呪)도 있었으나 재승(齋僧) 불사가 중심이었다고 보인다. 그에 비해 초도는 한국불교에서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으나 중국불교에서 망령의 추천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한국불교 일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천도’는 ‘추천 초도’의 약어로 정리할 수 있으며, 지옥의 중생을 건져내는 초발(超拔)의 의미보다, 천신제(薦新祭)와 같이 진수를 선조에게 제사 올리고, 좋은 궂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추선공양 의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선공양은 『석씨요람』의 ‘以善追助’란 어구를 근거로 추선공양이란 말이 생겨 나왔다”²⁷⁾고 하는 것 등으로 볼 때 추천이 곧 추선공양임을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Ⅲ. 敎義와 의례의 不離性和 딜레마

불교의 교의는 연기설과 무아론 등 팔만사천의 법문으로 표현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례적 관점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고 나서 다른 이들의 교화를 방기(放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립된 것이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일체 존재들이 생사를 반복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 윤회를 단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붓다가 간 길이다. 붓다의 가르침과 그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어야 한다.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전도하면서 시작되었다. 불교의 역사는 가르침을 펼친 전도의 역사이고, 새로운 시대와 지역에 맞게 그 가르침을 해석하여 펼친 기록이다. 그 과정에 형식화된 것이 불교의례인 것이다. 붓다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성립된 불교의례의 이론적 배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붓다의 경전과 율전이다. 해서 붓다의 말씀인 경전과 실천의 규칙들을 모아놓은 율장의 가르침을 떠나서 의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리의 의학과 의례는 불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불교의례도 의례이다 보니 일반 의례의 정의에서 언급되는 측면이 다분하게 내포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의례는 제사(祭祀)나 예배(禮拜)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 정형화된 행동(stylized action)을 하는 종교적 실천체계”²⁸⁾라는 데 불교의례도 부합되며, 또 “의례는 종교적 경험의 외형

27) 정각(2001), 21.

28) 윤이흠(1998).

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신앙을 창조하고 또 주기적으로 재창조하는 수단 이”²⁹⁾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서 “의례를 반복하게 되면 그 반복된 종교의례로부터 일종의 추상(抽象)이 형성되어 의례에서 예술로 변해간다고 말할 수 있다”³⁰⁾는 것처럼 불교의례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생산해 문화로서의 불교의례가 다뤄지고 있다. 해서 “종교미술은 유교의 것이든 불교의 것이든 모두 종교의례의 산물이다. 종교의례의 대상(對象)과 도구(道具)로, 또 그러한 의례행사(儀禮行事)의 장소로서, 조각(彫刻)·회화(繪畵)·공예(工藝)·건축(建築) 등이 성립된 것이”³¹⁾ 의례라고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 장에서 논의할 교의와 의례의 불리성(不離性)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 교의와 의례의 불리성

현대 행해지는 한국불교의 의례들은 원시불교의 교의와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사후 혼령에 언급이 일부 보일 정도인 데 비해³²⁾ 한국불교의 추천 초도 의례의 목적이 거의 전적으로 망령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불전 『담장 밖의 경(Tirokuḍḍasutta)』의 설명은 간략하나 사후의 망자에게 음식을 보시했을 때 망자가 음식을 베푼 친지들을 위해 축원하는

29) E. Durkheim(1965), 463-464. ; 吳庚煥(1988), 116-117쪽에서 재인용.

30) 이은봉(1997), 83.

31) 강우방(1995/2010), 398.

32) 『담장 밖의 경(Tirokuḍḍasutta)』, Khp.7.

모습이 보인다.

① 망자들은 담장 밖에서 그들의 옛집에 들어오려고 문설주 앞에 서 있네. ② 그러나 사람들은 풍부한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망자가 지은 과거의 업 때문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네. ③ 망자를 연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망자에게 맛있고 정갈한 음식으로 보시하며 이렇게 기원해야 하네. “이 공양이 죽은 이에게 전해지기를! 그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④ 친지들이 보시한 음식 주위에 모여든 망자들은 감사하며 정성 다해 친지들을 축원하네. ⑤ “친지들의 공양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음식을 보시한 친지들이 장수하기를! 그들이 이 공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³³⁾

『담장 밖의 경』은 초기 불교의 영혼관을 보여주는 경전이다. 망자를 위한 경전 염송과 재승공불의 공덕을 설하고 있는 원천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잠시 『담장 밖의 경』이 설해진 배경을 살펴보자.

어느 날 마가다의 왕 빔비짜라는 붓다님과 승단에 공양을 올린 후 자신이 지은 공덕을 회상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수많은 괴물들이 울부짖거나 공포스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괴롭힘을 당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붓다께 꿈이야기를 하며 연유를 물었다. 이에 붓다께서는 그들은 빔비짜라의 과거 생의 친족들로서 악업으로 인해 아귀(Peta, 餓鬼)로 태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꿈에 나타나 괴롭힌 것은 빔비짜라가 자신의 이름으로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아귀들에게 회향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므로 붓다는 빔비짜라에게 죽은 친족들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린 후에 그들에게 공양의 공덕을 회향할 것을 권하였으며 이 말씀에 따라 빔비짜라가 그대로 행하자 아귀도에 빠져 있던 존재들이 그

33) 정기선 역(2021), 418.

공양의 공덕으로 아귀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³⁴⁾

사후에 악업으로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원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구제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등 한전불교(漢傳佛敎) 시식 의례 성립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의 설명은 어떨까.

아난이 홀로 조용한 곳에서 所受法을 순하고 있었다. 밤三更이 지났을 때 매우 마르고 누추한 焰口라는 아귀가 “三日 뒤 너는 명이 다하고 아귀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아난이 “만일 내가 죽어 아귀로 태어나는 것을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물어 아귀로부터 “백천 나유타 향하사수 아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아귀들을 위해 삼보께 공양 올리면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된다.³⁵⁾

초기 경전과 밀교 경전의 아귀(pretā)에 대한 시식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담장 밖의 경』에서는 망자가 축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유가의 제사에서처럼 조상이 제사를 지내는 친제(후손)를 위해 축원하는 것과 유사하며, 아귀를 위해 공덕을 회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또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에서는 아귀에게 시식하는 목적이 자신의 수명 연장이라는 사실도 들려주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 추천추선, 칠칠재나 기일재 등의 공양 의례 체계는 대부분 이 경전의 변식진언을 터전으로 하여 시설(施設)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조금은 전도되었다고 보인다.

34) 정기선 역(2021), 420.

35) 不空 譯,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T. 21, 464c).

『지장경』의 재회의 공덕을 칠분의 일은 망자가 받고 칠분의 욕을 재자가 받는다는 칠분공덕설도 그렇지만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에는 시식의 목적은 자신의 수명 연장을 바라며 삼보에 권공하고 아귀에 공양(餓鬼供養)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하고 있다.

2. 개념과 실행의 딜레마

추천과 초도라는 의례는 사후의 혼령을 위해 후손 등 살아남은 이들이 선업의 공덕을 쌓아 혼령에게 돌려주는 추천공양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혼령 혹은 영혼이 불교의 무아론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불교의 증음은 49일이 지나도 존재하며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추천 혹은 천도를 해야 하는 대상인가 하는 것들이다.

첫째, 한국불교 의문(儀文)의 혼령에 대한 개념과 거처에 대해 살펴보자.

[某靈] 生本無生 滅本無滅 生滅本虛 實相常住 某靈 還會得無生滅底一句
 麼 [良久] 俯仰隱玄玄 視聽明歷歷 若也會得 頓證法身 永滅飢虛 其或未然 承
 佛神力 仗法加持 赴此香壇 受我妙供
 又 這一點靈明 虛徹十方 廣通三際 歷劫常存 去來自由 山河石壁 不能障
 碍 瞬目之頃 請則便到³⁶⁾

『금산사제반문』의 혼령을 맞이하는 영혼식(迎魂式)의 첫 장면이다. 먼저

36) 『金山寺諸般文』(1694, KR.2, 475).

‘모령’이라고 모 혼령을 부르고 생멸이 본래 없으므로 혼령 그대는 실상으로 상주(常住)한다고 이르고 있다. 또 일 점 혼령의 밝음은 시방을 통하고 삼세를 관통하며 역 겁 동안 존재하며 거래가 자유롭다고 하고 있다. 이 설명과 관점에서 보면 혼령은 마치 영혼의 불멸설을 주장하는 아프만(atman)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불생불멸의 혼령에 대해 불성(佛性)의 ‘야를 진아(眞我)라고 하고 불성의 내용이 범성과 공성과 무아성을 함축하는 이상, 진아는 실체이나 아프만의 인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즉사이진(卽事而眞)이라는 중국적 현실주의의 긍정론에 맞추어 무아를 재해석한 것이라고³⁷⁾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추천 의례 절차를 보면 재회에 초청되기 전에는 지옥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되고 있는데, 재회를 마치고는 극락에 가서 계실 것을 늘 발원하고 있다. 혼령의 왕생극락을 위해 상위의 존재에게 권공 재승하며, 선조와 하위의 무주고혼까지 시식한다. 그렇게 해서 극락에 가기를 발원한다. 재회를 열어 선조와 고훈들이 불력 법력 진언가지력과 친지들의 재회 공덕력에 힘입어 왕생극락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재회를 열 때는 그 선조와 고훈들이 지옥에 있다는 전제로 의례가 행해진다. 만약 혼령이 다시 지옥에 떨어졌거나 극락에 있다가 지옥에 갔다면 지난 재회의 공덕으로 이룬 왕생극락의 가피가 유한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게 된다.

둘째 추천재에는 새로 죽은 이를 위해 행하는 칠칠재와 백일재·소상재·대상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당사자 혼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정 혼령이 사후에 증음으로 존재하는 기간

37) 김종욱(2006), 103.

에 행하는 추천재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물론 중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실부모한 선조를 위해 스님들의 자자일에 재승을 공양하고 선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백중칠칠재’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칠칠재 개념은 동참으로 정해 놓은 날짜에 닦는 예수재를 제외하고는 새로 죽은 망자를 위해 행하는 추천의 칠칠재라고 할 수 있는데, 매년 1년에 한 두 차례 선조의 추선공양을 위해 칠칠재를 해도 무방한가 하는 것이다.

대승 경론인 『유가사지론』이나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칠칠일 간의 중음[中陰, 中有]의 기간이 설정되고 있다.³⁸⁾ 그런데 이 칠칠일의 중음 기간이 더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불교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당말(唐末)에 이르러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 편찬되면서 종래의 초재(初齋)부터 칠재(七齋)까지의 일곱 번의 재 이외에도 백일재(百日齋), 일주기(一周期), 삼회기(三回忌)의 재회가 더해져 모두 10번의 재회를 지내는 ‘시왕재(十王齋)’로 발전하³⁹⁾게 되었다. 이 같은 모습은 9세기 말의 시왕신앙과 예수신앙의 발전으로 불교의 재회가 십 회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 경전이나 논서가 아닌 중국불교의 시왕신앙에 의해 중음은 이제 대상재까지 재생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불교의 혼령인 중음중위의 존재 기간은 삼회기 때까지만 봉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재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물론 혼령이 실재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인식의 문제일 수 있고, 선조의 중음이 재탄생의 길을 걸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을 위해 시식하는

38) 『瑜伽師地論』(T.30, p.282a); 『지장보살본원경』(T.13, 784a).

39) 道端良秀(1960), 10.

차원으로 정성을 다해 삼보에 권공하고 재승하며 일체의 존재들에게 시식하는 것이 망자를 추모하는 재자의 정성이라면 망자가 어디에 있든 무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회의 공덕도 무한하고 또 그것의 수용도 재자가 주로 받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딜레마라고 할 것도 없을 수 있다. 불교의 시식 대상은 특정의 혼령에 한정하지 않고 일체 존재를 위한 공양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혼령의 무아성과 재회의 반복성은 일견 딜레마로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의례가 갖는 본래의 의미와 특징을 확연히 인지하는 데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재회를 여는 것은 선조의 혼령이나 일체의 혼령을 추천하거나 초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수명장원과 복록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조나 아귀에게 시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르게 알고 행해야 교의와 의례의 불리(不離)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IV. 한국불교의 추천 초도 의례

한국의 불교의례는 내용의 의미와 형식(설행양식)을 위주로 분류하거나 명명할 수 있고, 자행과 대타의 의례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⁴⁰⁾ 사실 자행이나 수행의례는 일반 의례적인 요소가 적으므로 논외라 하고, 신불(神佛)에게 재자의 공양을 올리고 망자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의례들은 두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진리를 들려주는 법석을 짓는 의례와 공양을 권

40) 이성운(2012), 17-23. ; 이성운(2016a), 271-279.

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전통 한국불교의 의례를 담고 있는 의례 혹은 의문은 대체로 이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석을 짓는 의례는 시주이운과 재대령·관육, 괘불·설주이운, 영산작법(제불통청·상주권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공양을 올리는 의례는 개계를 시작으로 시왕을 청하는 의례로 시작되는데, 이는 일종의 각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말에서 언급하는 추천과 초도는 선업을 닦는 불사의 하나이지만 주로 당해 혼령과 고훈들에게 삼단(三檀: 無畏施·財施·法施)의 보시를 베풀어 주어 기갈을 면하고 업장을 소멸하여 지혜를 얻어 왕생극락하도록 돕는 의례로 한국불교에 정착되어 있다. 특히 혼령을 초청하여 삼단의 보시를 베푸는 의례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재대령과 관음시식의 형식이고, 둘째 사명일대령과 전시식이다. 이 두 유형의 시식은 상·하 시식이라고 지칭된다.⁴¹⁾

논자는 이 두 유형의 시식이 곧바로 이 장에서 다루는 추천과 초도의 그것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점에서는 유사한 맥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두 유형의 의례를 바탕으로 추천에 근접한 의례(상시식과 영반와 초도에 어울리는 의례(전시식 등)로 나눠 그것에 대한 구조와 의미, 한국불교 의례 수행자 또는 담지자들의 인식들에 대해 개괄해 보고자 한다.

41) 상·하 시식은 조계종 초대 어장 동주 원명의 증언이자 설명이다. 이와 유사하게 시식과 영반으로 구분하는 점은 본 논문의 견해와 일정 부분 일치하나 세부적인 시식의 설명 등은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 심상현, 「施食과 靈飯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72(한국불교학회, 2014.12).

1. 추천에 근접한 靈飯

추천과 초도가 크게 다른 의례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추천의 특징은 새로 죽은 선조를 위한 의례라는 것으로 ‘추천재’라는 시기성(時期性)에서 확인된다. 불교의 시아귀회는 특정의 선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그 대상이 ‘일체만령위’로 확장되고 있다. 마치 『부모은중경』에서 남염부주를 순회하던 붓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발견하고 그곳에 오체투지의 절을 하면서 ‘내 전세의 조상이나 누세의 부모였을 수 있다’⁴²⁾라고 하신 말씀이 그 관점을 뒷받침해 준다. 추후 선행의 공양을 올리는 의례에는 ‘상시식’이라고 하는 관음시식과 당해 혼령에게 반(飯, 제수)을 올리는 영반이 있다. 영반 의례에는 상용영반과 종사영반이 있는데, 영반은 반승처럼 혼령에게 반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므로 불교식 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시식이라고 하는 관음시식은 시식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이것부터 해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다음에 영반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상시식이라고 하는 관음시식은 왜 관음시식이라고 하고, 상시식이라고 하며,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불교의 시식은 앞에서도 살폈지만 “구발아귀다라니경”이고 이 경 속의 변식진언이 설해지면서 성립되게 된다. 재자(시주)의 유한한 음식으로 무량한 아귀들에게 시식하려면 유한한 음식이 무한한 음식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현재의 변식진언의 가지(加持, 宗教的 聖化)이다. 이 다라니로 가지하고, 또 불보살의 자

42) 「은중경언해」(1988), 18-21. 『은중경』은 1555년 화장사판을 필두로 1564년 송광사판, 1668년 적방사판 등이 존재한다.

비 원력(願力)이 더해져 한 그릇의 음식이 한량없는 음식으로 변화된다. 한량없는 음식으로, 한량없는 아귀를 먹일 수 있게 되고 배부른 이들은 (편안한 마음을) 붓다의 진리를 듣게 되면 복덕과 수명이 늘어나고 깨달음(bodhi)까지도 얻게 된다.⁴³⁾

세존이 설한 이 변식진언은 세존 전세에 관세음보살에게 받은 다라니이므로⁴⁴⁾ 관음보살이 이 진언의 설주(說主)이므로 관음시식이라고 불리게 되었다.⁴⁵⁾ 관음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관음신앙을 지닌 망자를 위해 관세음보살을 증명으로 모시고 거행하는 시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⁴⁶⁾ 관음보살이 증명청에 초면귀왕 비증보살로 초청되는 것은 고힘의 인로(引路)를 위해서이다. 일반 재회에서의 관음청은 가지주수(加持呪水)를 위한 것이다. 관음시식을 ‘상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산재나 예수재 등을 봉행할 때, 법당 밖이나 외진 곳에 고힘 위주로 차려 전시식을 봉행하는 데 비해 당해 혼령과 삼대 가친들을 위한 시식으로 정착되어 상단 옆 또는 법당 내에서 행해지므로 ‘상시식’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반의 구조와 특징은 무엇인가. 영반이라는 의문이 출현한 시기를 제사의 도입과 연관해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식과 영반의 효시는 6세기경 梁武帝에 의해 탄생한 水陸齋이다. 그로부터 다시 분화 발달하여 4종

43) 이성운(2012), 36-37.

44) 不空奉 譯,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T. 21, 464c~465a).

45) 관음시식이라고 하니 간혹 종파에 따라 정토시식, 지장시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시식은 시식하는 방법의 다라니의 설주나 설해진 경전을 따라 명명하거나 목적이나 전물을 중심으로 명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엄시식은 화엄경 현수품의 공양게송 보방계를 활용하여 화엄시식이라고 명칭이 되었다고 보인다. 보공양진언과 그 이후의 사다라니 등은 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심상현(2014), 204.

의 시식과 2종의 영반이 성립된 것이”⁴⁷⁾라고 하는데, 수록재의 기원을 양무제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그 의문들은 송나라 이후의 것이므로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불교에 영반이나 관음시식의 의문이 등장한 시기는 17세기의 일이다. 물론 14세기 주자학이 도입되고 조상제사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16세기 초반 영반의 형태인 대령소참(對靈小參)이 나타나고 있으며,⁴⁸⁾ 17세기 문헌에 ‘상용영반과 ‘관음시식’이라는 명칭의 의례가 등장하고 있다.⁴⁹⁾

17세기 징광사판의 대령소참, 상영영반식, 관음시식의 구조와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사문(沙門, 外沙門)으로 나아가 당해 혼령(모령)을 소청해서 맞이하여 절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불전의 삼보께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힌 다음 먼저 차를 한 잔 올린다. 그리고 자리에서 편히 쉬시도록 하면서 향·등·반(飯)의 제수를 올리고, 반야심경 염송으로 법시를 행하고, 봉송하는 차례로 영반을 마치고 소대로 나아가 혼령의 위패를 사르며 혼령을 보낸다.

징광사판에 실린 관음시식의 구조 상의 특징은 진령계 이후 천수찬계가 아닌 보타산과 안양국 연화대의 찬탄으로 진행되고 천수주와 파지옥계(유심계)와 진언을 지옥을 파한 다음 소청한다. 이때 오늘날의 초면귀왕 비증보살을 청한 다음 모령의 오죽육친과 스승 등 일체 친속을 청하여 모시게 된다.⁵⁰⁾ 일체 친속을 모시므로 ‘위아래 차례대로 앉으시라’는 헌좌계를 하

47) 심상현(2014), 186.

48) 玄敏 寫(1529).

49) 澄光寺板(1662), 『講文』(대흥사 소장본). 대령 이후에 상용영반식과 그 이후에 관음시식이 편제되고 있다.

50) 17세기 청문과 달리 현재에는 관음시식은 영반에서 ‘차도량내외 ~’하며 일체 고힌까지 소청하고 있다. 이봉수 편(1977), 264, 324. ; 이성운·곽묘신(2021),

는 것이다. 공양을 올리기 위해 사다라니로 변공(變供)한 다음, 초청한 혼령들의 몸과 마음의 전환을 위해 오여래의 성호를 칭명하여 시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한 다음 시식을 베풀고 봉송하게 된다. 봉송 전에 저승(극락으로) 가는 노자(路資)라고 할 수 있는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한 염불(장엄염불)을 하여 혼령들의 공덕을 닦아준다.

영반과 관음시식의 가장 큰 특징은 영반에는 당해 혼령을 위한 시식이라 별도의 변공 장치가 보이지 않으며, 당해 혼령의 친지들을 위한 관음시식에는 사다라니 변공의식과 무외시 이후에 시식하는 모습이 있다. 영반과 상시식인 관음시식은 15세기에 발아하고, 17세기 이후에 그 형식이 확립되었으며, 일반 시식과는 별도의 의례로 정착하게 된 것은 유가의 봉사(奉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2. 초도에 어울리는 施食

앞에서 초도는 스님을 초청해 경전을 염송하거나 예참하여 망자의 업장을 소멸해 고통과 액난을 벗어나게 하는 의례라고 하였다. 경전을 염송하는 의식은 법석이라고 하며, 그것을 행하는 의식은 ‘작법절차’라고 한다. 시식은 경전을 염송하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식의 대상은 앞에서 살펴본 영반이나 관음시식과 달리 그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식의 가장 큰 형식은 수록재 중례문의 하위소청과 그들에게 베푸는 시식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초도에 어울리는’이라고 절의 명칭

192-197.

51) 이성운·곽묘신(2021), 191-192.

을 붙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초도와 같은 형식의 의식이 성립하려면 영산 작법과 수록작법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중국불교 수록재에서 외단의 법석과 내단의 수록법회를 동시에 진행하듯이.

시식의식에는 그와 같은 형태가 모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시식인 관음시식에 대응하는 ‘하시식’이라고 불리는 전시식(奠施食)은 관음시식의 등장 후에 기존의 시식의문을 ‘전시식’이라고 구분하게 되었다고 보인다.⁵²⁾ 전시식은 시식의 원초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⁵³⁾ 18세기 초반에 쓰인 『운수단의문(雲水壇儀文)』에는 현좌계주 이후 전시식으로 봉행할 때는 “나무상주시방불”부터 시작하고 관음시식으로 할 때는 타종 이후에 “상주삼보”의 거불을 한 다음 ‘사다라니’로 시작한다고 협주하고 있는데⁵⁴⁾ 거불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다.

『운수단의문』에는 ‘사명일영혼식’ 다음에 위의 협주를 가하고 있어 당시에는 의문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금산사제반문』(1694)에는 “시식의문”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는데,⁵⁵⁾ 그 내용을 『석문의범』(1935)의 전시식⁵⁶⁾과 비교해 보면 혼령을 청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다고 하겠다. 시식 의례는 ‘소청 → 시식 → 봉송’으로 이뤄지는데, 청하는 대상, 전제 조건 등이 차이가 날 뿐이다.

초도에 어울리는 시식은 일반 시식으로,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전시식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사명일 대령 이후의 시식이다.

52) 義圓 書, 『雲水壇儀文』(KR,3, 201).

53) 심상현(2014), 200.

54) 義圓 書, 『雲水壇儀文』(KR,3, 201).

55) 『金山寺諸般文』(KR,2, 508상-511상).

56) 안진호 편(1935), 65-70.

사명일(四名明日)은 정조(正朝)·단오(端午)·백종(百種)·가오(加午)⁵⁷⁾인데 이날은 사찰에서 국혼·승혼·고혼을 초창하여 시식을 베푸는 날이다. 국가불교 시대 국가로부터 받은 위전(位田)의 수확으로 네 차례 시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날의 시식에는 국혼의 종실위, 승혼, 고혼 등의 일체 혼령이 초창된다. 해서 영반에서는 ‘모령’으로 특정의 혼령이 불리나(청해지나) 전시식에서는 ‘제불자(諸佛子)’가 불리게(청해지게) 된다.

초도 의례에 송경(誦經)하는 의문은 삼단(三檀) 등시(等施)의 하위 의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불자들로 하여금 사홍서원을 발원하는 발홍서원편이나 해탈법문으로 십이인연법이 설해지는데 이것이 송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십이인연법문을 다시 더욱 간략히 한 것이 금강경의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⁵⁸⁾라는 계송을 들려주는 방식이다. 각 경전을 완전히 들려주지 못하니 해당 경전의 핵심 계송으로 제법의 실상을 보여주는 법시(法施)를 하는 것이다. 수록재에는 법화경 계송이 중심이었고, 『금산사제반문』 시식의문에는 금강경 계송으로 이뤄지나 『석문의법』의 관음시식에는 열반·반야(금강)·법화의 계송을 채택하여 법시가 이뤄진다. 세(三) 경전의 핵심 계송을 모아 법시하는 모습이 마치 꽃 세 송이를 모아 하나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과 같은데 한국불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57) 智禪 撰(1661), 176중.

58) 『金山寺諸般文』(KR.2, 511상).

59) 이성운(2013), 260-263. 이 같은 양상을 “會三의 發花”라고 명명하였다.

3. 천도재로 승화된 추천과 초도

당해 혼령을 위주로 하는 영반이나 그 친족을 중심으로 하는 관음시식의 추천과 사명일 등에 불특정 다수의 삼혼을 청해 시식(전시식)하는 초도는 현대에 이르러 그 고유성이 약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시식은 법당에서 행하고, 하시식인 전시식은 마당의 외진 곳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⁶⁰⁾ 추천과 초도의 미세한 차이를 지니고 있던 영반(靈飯)과 시식(施食)이 근현대 시기에 이르면서 적지 않은 변용을 겪는다. 변용의 정점에 천도재가 출현하였다. 불교 의례 자료나 역사 등을 통해 보면, 특정 기일에 행해지는 추천재의 한계를 벗어나, 불특정의 시기에, 망령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초도(超越度過)하는 의례의 역할이 더해져 ‘천도재(薦度齋)’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십구재, 칠칠재, 기일재 등이 아닌 때에 추천의 재를 초도처럼 봉행한다는 의미라는 의례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형식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불특정의 날에 조상 혼령들을 청해 시식제수를 올리는 의례를 천도재라고 하는데, 천도재라는 표현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천령재’나 ‘천혼재’라고 부른 것 같고, 재(제사)를 올리는 이도 천령재자, 천혼재자라고 칭했다고 한다.

칠재나 사십구일재, 특정일의 재가 아닐 때 행하는 천령재가 천도재라고

60) 상시식·하시식이라는 표현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하시식인 전시식은 대체로 법당 밖에서 재장의 상위 승려에 의해 실행된다. 이것은 내부자를 위한 상시식보다 외부자들을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승급에 있는 분들이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하시식인 전시식의 가장 큰 형식이 수륙재라고 할 수 있는데, 진관사수륙재에서는 전시식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진관사수륙재의 특징이 왕실의 수륙재를 상시식으로 모셔왔다는 것을 염두에 둔 차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리게 된 연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천도재라는 명칭이 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의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무인(巫人)들의 ‘성불시킨다’, ‘천도시킨다’라는 구제의 개념이 천도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천이나 천령(薦靈), 천혼(薦魂) 등은 다 (추후에) 제수를 올린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귀(餓鬼)의 구제와 관련된 『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이나 『救面然餓鬼陀羅尼經』에서 볼 수 있듯이 구제할 때는 천도재라고 할 때의 ‘천(薦)’자를 쓰지 않는다. 천도재의 ‘천’자는 ‘천신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도’자는 탁자라는 뜻과 ‘좋은 곳에 가 계시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혼령들에게 시식을 위해서 탁자에 천신물(薦新物)을 올려놓는 모습이 천도(薦度)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천혼제, 천령제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천도재의 천자는 추천의 천에서 왔고, 천도의 도자는 초도의 도자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천도재의 의미는 추천시기가 아닌 때 추천을 초도처럼 한다는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다. 추천재와 초도재의 결합으로 성립된 천도재는 현대 한국불교가 성립한 새로운 의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간혹 천도재(薦度齋)를 천도제(薦度祭)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로 삼기도 하는데, 천도재는 실행 양태를 보면 천도제에 가까운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재는 재승, 재공일 때 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재승의 형식은 없으나 재자(齋者)가 사찰에 재비(齋米)를 보시하고 있으므로 재가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다. 다만 천도재의 천자를 옮길 천(遷)자로 표기하는 것은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쓰인 적도 별로 없고 의미도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이 세계의 고통을(此岸) 소

멀하고 깨끗한 나라 저 세계(彼岸) 건네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추천이나 초도의 공능(功能)을 실제적인 이동(遷移)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깨침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추천과 초도는 현대에 천도재로 승화되어 현대 한국불교의 주요한 신행(신앙·수행) 의례로 정착되었다. 효(효도)를 실천하며 자신의 공덕을 닦고,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의례인 천도재를 통해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는 불자가 늘어날 때 천도재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V. 結語

한국불교의 교회의례에는 경전을 염송하는 의례인 법석과 공양을 올리는 의례인 시식(권공)이 있다. 이 의례들은 다 공덕을 닦는 불사이다. 이를 통해 봉행하는 이나 소천(所薦)의 망자가 다 공덕을 입어 업장을 소멸하여 산자는 재수와 복록이 늘어나고 망자는 더 나은 곳에 가서 나게 된다. 이 의례에 대해 그동안 천도재라고 이해해왔으나 역사 전통이나 의미 등에 의하면 추천과 초도의 성격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통시성을 바탕으로 의례 구조와 내용을 살폈다. 추천은 영반으로, 초도는 시식의례에 부합된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현대 한국불교에 유행하는 천도재의 성립에 대해서도 돌아보았다.

이 같은 한국불교 의례에는 불교 교의의 그것과 조금은 달라 보이는 중음과 그 존재 기간 등과 상관없이 천도재라는 이름으로 매년 1~2회 이상

반복하는 것, 중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실행하거나, 혼령을 실체화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대할 때의 혼란이 있다고 보여 이를 딜레마라고 명명해보았다. 물론 대다수 한국 불자들은 딜레마라고 인식하지 않으나, 초기 불교에 익숙한 이들은 한국불교의 이것들에 대해 내심으로 다른 생각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불교 재회를 여는 한국의 불교도들은 자신의 공덕을 닦는다는 인식보다 조상님을 생각하며 재를 봉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조상 혼령이 언제까지 존재하고, 지옥과 극락을 왕복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해서 딜레마라는 표현 자체에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례라면 교의와 의례가 불리(不離)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우리 불교의 견해들은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해서 교의학과 의례학의 바른 이해 아래 한국의 불교의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면 의례에 대한 오해는 사라지고, 교의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의 의례 생성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한다.

시식의례의 기교(起敎) 대사 아난존자가 자신의 수명장원을 바라며 시식을 열었고, 당의 종밀(宗密)이 조실부모를 위해 추천불시를 했듯이, 불교의 추천 재회의 본래 정신을 잊지 않고 열면, 선조에 대한 효의 실천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업을 소멸하고 수명장원 등 소원을 이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의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상을 위한 영반과 일체의 혼령과 존재들을 위한 전시식 등 천도재 개최는 타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정 자신을 위해 업장 닦고 선행 쌓는 의례라는 것을 바로 인지한다면 말이다.

〈참고문헌〉

【대장경 약호】

T.	: 『大正新修大藏經』
HD.	: 『韓國佛教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KR.	: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삼성암, 1993.

『태종실록(太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雜阿含經』(T.2).

『緣起經』(T.2).

『地藏菩薩本願經』(T.13).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T.21).

『瑜伽師地論』(T.30).

정기선 역, 「담장 밖의 경(Tirokuḍḍasutta)」, 『신찬 신행의범』(서울: 정우북스, 2021).

「華嚴遊心法界記序」(T.45).

東坡居士軾, 「畫阿彌陀佛像偈(并序)」, 『樂邦文類』(T.47).

王日休 撰, 『龍舒增廣淨土文』(T.47).

宗密 述, 『佛說盂蘭盆經疏』(T.39).

「은중경언해」(1988), 『原本國語國文學叢林』(서울: 대제각).

「懶翁和尚語錄」(HD.6).

「白雲和尚語錄」(HD.6)

『金山寺諸般文』(1694, KR.2).

義圓 書, 『雲水壇義文』(KR.3).

智禪 撰(1661), 『五種梵音集』(HD.12).

안진호 편(1935), 『석문의범』 하권(만상회).

월운(1980 / 1986), 『삼화행도집』(보련각).

이봉수 편(1977), 『불교의범』(보련각).

강우방(1995 / 2010), 「甘露埴과 樣式變遷과 圖像解釋」, 『甘露埴』, 藝耕.

미치하타 료오슈우 저, 최채경 옮김(1991), 『불교와 유교』, 서울: 한국불교출판부.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2011),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서울: 조계종출판사.

윤이흠(1998), 「종교와 의례」, 『종교연구』 16호, 서울: 한국종교학회.

이은봉(1997), 『종교세계의 초대』, 벽호문화사.

김종욱(2006), 「무아에서 진아까지」, 『범한철학』 43, 범한철학회.

道端良秀(1960), 「中國佛敎と祖先崇拜」, 『佛敎史學』 第9卷 第1號, 佛敎史學會.

박세민(1993), 「불교의례의 유형과 구조」,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제1집, 삼성암.

심상현(2014), 「施食과 靈飯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72, 한국불교학회.

이성운·곽모신(2021), 「유가의 봉사를 만난 한국불교 시식의식의 원용성」,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사학회.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3), 「한국불교의식의 특성」, 『대학원연구논집』 제6집, 중앙승가

대학원.

_____(2016a), 「불교 의례의문의 명칭에 대한 고찰」, 『기호학연구』 47, 한국기호학회.

_____(2016b), 「한국불교인의 죽음인식과 그 극복행위」,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 계명대학교출판부.

이연경(2021), 「칠칠재의 방향성 연구」, 서울: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각(2001), 「불교제례의 의미와 행법」, 『가정에서의 불교식 제사(齋)』,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

侯冲, 郭磊 譯(2016), 「水陸齋의成立考察—以新發現資料爲中心」, 『제8차 불교의례문화 국제세미나-수륙재와 영산재의 성립 고찰』, 불교의례문화연구소.

논문투고일: 2022. 11. 15. 심사완료일: 2022. 12. 14. 게재확정일: 2022. 12. 17.

〈Abstract〉

The Buddhist rituals of Chucheon(追薦) and Chodo(超度)

Lee, Sung - woon

Moon, Ki - jo(Ven. Moon - hyun)

Buddhism, which accepted the idea of continuing life-and-death reincarnation in the six realms after death according to the karma done during life, developed the variety of rituals for the dead. This writing considers Cheondojae(薦度齋, the ritual for the dead to attain rebirth in the Pure Land) which is the Korean Buddhist rituals for the deceased, and the rituals of Chucheon(追薦, praying for the repose of one's soul) and Chodo(超度, reciting, worshiping and doing penance for the dead) prior to it, and examines whether practicing Cheondojae in Korean Buddhism conforms to the Buddhist teachings. Chucheon is the rites where they put offerings at a specific service such as Chilchiljae(七七齋, the weekly ritual for the deceased for seven weeks), and Chodo is the rites where they invite monks and nuns to recite sutras(誦經) and make a ceremonial repentance before the Buddha and Bodhisattva with adoration(禮懺).

The rituals of Korean Buddhism are a bit far from Buddhist doctrine and this is the case in the purpose of the ritual practice. In addition, the concept of the

spirit and the recognition of its dwelling place and the intermediate stage between death and rebirth, etc.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doctrine, which might be a dilemma in terms of accepting and practicing these rituals. The rituals widely practiced in modern Korean Buddhism include Yeongban(靈飯, banquet for the soul of dead monks and nuns) suitable for Chucheon and Sisik(施食, the rites of banquet) suitable for Chodo. These two rites were developed into Cheondojae, and they were established as the major rites for faith and practice in Korean Buddhism so that one may purify karma and accumulate good deeds for oneself.

Key words: The Buddhist rituals, Samsara(life-and-death reincarnation), Chucheon(追薦, praying for the repose of one's soul), Chodo(超度, reciting, worshiping and doing penance for the dead), Yeongban(靈飯, banquet for the soul of dead monks and nuns), Gwaneum sisik(觀音施食, Avalokiteśvara banquet), Cheondojae(薦度齋, the ritual for the dead to attain rebirth in the Pure Land)